

무관심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한 일련의 대형사건들이 최근 몇년 사이에 터졌다. 항공기의 추락, 열차의 전복, 유람선의 침몰, 가스의 폭발, 다리의 붕괴, 백화점의 무너짐 등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온통 아비규환의 대참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모두가 인간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엄청난 재앙이었다.

미래를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思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인간들의 무관심은 이렇듯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남겨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견줄바는 아니지만 한국양륙협회에 몸담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바로 「무관심은



문중환
한국양륙협회 홍보부장

범죄다」라는 것이었다.

전국에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가 공식적으로 1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한국양륙협회에 가입된 회원이 지난 1월 30일 현재 1천 3백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육농가의 13%만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해인 95년도에 걸친 회비가 고작 1천2백여만원으로 가입된 회원의 10%만이 회비를 납부한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일개 생산자단체의 외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회원으로 가입했으면서도 회비를 납부하는데에는 인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모두가 양륙인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소치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무관심 했으면서도 협회를 향해 돌팔매질할자 그 누구인지

“

협회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외부에서 양륙업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며, 양륙인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먹혀 들어갈 것이다.

”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협회에서 해놓은게 있어야 회비를 내지. 맨날 아웅다웅 자기들끼리 싸우는 ○○들한테 뭐가 예뻐서 회비를 내나」라고 말이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협회의 무용론까지 들먹이는데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생각을 고쳐 먹기로 했다. 미처 협회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기도 했지만 이왕 협회에 몸담은 이상 양록인들의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그동안 협회를 향한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자고. 그리하여 양록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자고.

양록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설령 그동안 협회를 향한 감정이 많았다고 치자. 협회에서 하는 「꼬락서니」가 아니꼬웠다고 치자.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도대체 협회는 누구의 생산자 단체인가. 어느 일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인기업체는 아니지 않는가. 바로 양록인 여러분들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가.

지금까지 협회를 앞장세워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사가 있었던가.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여 집이라도 한채 장만한 직원이 있었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협회의 재

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의 살림살이는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오죽했으면 협회 임원들이 갈앉구 입비를 선지급하여 사무실을 운영했겠는가. 서글픈 협회의 행로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양록인들의 의식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협회에 비협조적인 양록인일수록 협회를 향한 원성이 대단함을 감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지경까지 양록인들이 협회를 불신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바로 양록조합의 탄생전후에 엄청난 마찰을 빚어 그 여파가 양록인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지금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양록인들이 협회하면 「에이」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것이다.

바로 잡겠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일이 아니겠지만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사실이었든 이제는 양록인들 스스로가 가슴을 열고 한마음 한뜻으로 양록중흥을 위해 발벗고 나설 시기라는 점이다.

일반 양록인들이 생각하듯이 협회와 조합간의 빚었던 마찰

도 이제는 해소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회장과 조합장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양록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여 해결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협회와 조합간의 꺼리길것 없는 화해의 무드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양록인들은 기뻐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도 협회와 조합의 고유업무를 구별 못하는 양록인들에게 있다. 양록업계에 협회와 조합 두단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이 안된다는 주장은 「나는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된다. 협회와 조합의 고유업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협회는 양록인 전체를 위한 권익대변 단체이나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수익사업 창출 단체라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협회는 회원의 회비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양록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으로 양록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단체인데 반해, 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을 바탕으로 양록생산물등을 팔아 많은 수익을 남겨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경제사업 단체이다.

가장 이상적인 협회와 조합의 설정관계는 조합이 사업을 잘 하도록 협회가 대정부 활동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조합은 수익을 많이 남겨 재정을 살찌우고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회비를 받아 협회에 보내주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일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나 머지않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래도 협회가 어땡고 조합이 어땡고 입방아를 찧어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협회와 조합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협회가 제기능을 올 바로 수행하고 양록인들의 권익을 찾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시슴을 기르는 모든 양록인들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당장 가지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서, 과거가 못마땅하고 불쾌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방관자적인 양록인으로 남아 무관심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협회에 가입하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여 우리의 양록업이 기간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협회는 어느 일개인의 단체가 아니다. 바로 양록인 여러분들의 단체이다. 나하나 썸이야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지」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개인적인 이기심이야 말로 한 단체를 수렁으로 빠뜨릴수 있는 함정임을 명심하자.

협회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외부에서 양록업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며, 양록인의 주장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먹혀 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양록인들끼리 서로 이전투구하며 각각의 제목소리를 내다보면 별볼일 없는 업종으로 간주하여 협회는 물론 양록인 전체를 무시하려 들 것이다.

하여 양록인들의 무관심은 곧 양록업 자체를 말살시키는 범죄와 다름아님을 각성하자.

*

• 토막정보

마취제 및 회복제 사용시 유의사항

- 마취제 사용은 반드시 사슴이 안정된 상태에서 8시간 이상 절식시킨후 사용해야 한다.
- 마취제 주사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피하고, 사슴이 주저앉아 머리를 완전히 땅에다 대고 누워 있을때 접근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 절각은 반드시 머리부위가 몸통보다 낮은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 회복제의 과량사용은 사슴의 흥분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피하 또는 근육 주사시에는 회복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맥주사 한다.
- 정맥주사는 후지정맥(뒷다리 부위), 이정맥(귀 부위), 경정맥(목 부위) 등에 실시하는 것이 쉬우며, 정맥을 정확히 찾아 소독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
- 절각시에는 사슴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관계로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으므로 회복제 주사후 즉시 일으키면 다리가 절여(쥐가 남)서 일어나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다리를 오랫동안 로프로 묶어 놓았을 때는 더욱 혈액순환이 안된다.
- 회복제 주사전에는 미리 다리에 묶어 놓은 로프를 제거하고 주사후에는 사슴의 얼굴에 덮어 놓은 수건을 2~3분 후에 제거하여 일어나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